

著作權 사상의 확립

張仁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1일로 새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1주년을 맞았다.

新法의 출현이라 해야 출판계로 보아서는 저작권질서의 근본이 뒤바뀐 것도 아니어서, 그저 국제 추세에 맞추어 낡은 것을 새롭게 손질한 정도더니, 가볍게 받아들여도 될 법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새 저작권법의 제정은 세계저작권협약(UCC)에의 가입을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그후 지체없이 UCC가입이 실현(1987. 10. 1) 되었다는 사실을 되살펴 보면, 새 저작권법 탄생이 지니는 의미는 출판계를 비롯한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크기의 충격이었다고 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이때를 기하여 우리의 저작권질서는 자기폐쇄에서 개방으로, 쇄국주의에서 국제주의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감행한 것이다. 출판 방송 공연 할것 없이 모든 저작권산업이, 앞으로 불어닥칠 외국저작권의 회오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해야 할 황야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 어찌 이것이 충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처럼이나 큰 충격이 있는지 1년, 도무지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출판계, 그리고 우리의 문화계는 조용하고 평온하기만 하다. 까짓 충격 썩어야 눈썹 하나 끄떡 않을 만큼 우리가 힘있고 역세기라도 하단 말인가. 아니면, 충격을 충격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경이 마비상태에 있던 말인가? 후자를 옳다 함에 주저가 있을지언정 전자를 그르다 함에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눈을 돌려 우리의 저작권질서가 존재해온 실상을 살펴보자.

이익보다 情分을, 계약보다 신의를 앞세우던 유교적 계마인사프트의 전통이 유전인양 오늘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저자와 출판자는 믿음 하나로 일을 꾸렸지,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노릇이란 아예 치사스러운 일로만 여겨 왔다.

국제간 협약이라는 외풍만 없고 우리끼리만이라면 유별나게 저작권질서라는 특화된 질서를 애써 찾을 필요없이, 전래의 질서, 그 정분과 신의의 질서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저자·출판자간 이심전심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그래, 이런 풍토, 저작권질서의 특화가 필요없는 이 풍토 속에서 저작권사상이 어떻게 뿌리를 박는단 말인가? 저작권제도가 법제화되지 어언 30년, 이 법이 저작권의 실체를 규율하였다면 거짓말이다. 도대체 몇건의 判例를 산출하였느냐 되물어보자.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법은 법대로, 실체는 실제대로 空轉하는 사이 저작권사상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리하여 둔감하게도 충격을 충격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 평온의 진상인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이익과 계약을 앞세우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끼리의 사이에도 특화된 저작권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물며 철저한 저작권사상으로 무장하여 계약과 소송의 기술이라면 이골이 난 선진 외국의 저작권산업이 우리네 정분이나 신의 따위를 한갓 웃음거리로도 치지 않을 터이라, 우리 또한 정정당당하게 저작권사상으로 맞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출판계를 비롯한 저작권산업인의 분발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는다.

세미나	2	'지적소유권' 문제, 어디까지 왔나
	3	개방화시대의 광고와 저작권법
시론	4	저작권인식 확산, 전문가 양성 시급 / 윤희창
	5	'저작권 강의' 겨우 9개 대학
	6	영상매체 시대의 책 ① 책속의 사진 / 鄭鎭國
리포트	8	출판은 제3세계 발전의 열쇠 / 李斗暎
서평	10	「韓國近代民族運動史研究」— 鄭昌烈 「문화민주주의」— 金烈圭
	11	「교육과 이데올로기」 「教育과 權力」— 姜순원 「現代資本主義와 情報社會」— 李正春
	12	「生醫倫理學이란?」— 秦教勳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神話學」— 李元馥
출판화제	14	새롭게 조명되는 한국漢文學
	16	우리시대의 추천도서 '오늘의 책'
	18	활기 띠는 '서울 올림픽' 출판
작품구상	9	언론과 재벌의한관승부 「고래잡이」 / 安正孝
저작구상	17	「家父長制의 기원: 성차별의 기원」 / 조옥라
지금 독서중	20	申庚林의 「민요기행」— 잡지기자張昌洛씨 「사르트르 短篇選」— 회사원沈淑輔씨
	21	라울라의 「스스로 찾는 행복」— 동국산업金淵花씨 고무송의 「생활 속의 철학」— 회사원 曹壽鎡씨
	22	五味川純平의 「인간의 조건」— 시보편집실金男姬씨
지금 번역중	22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 번역가李潤基씨
세계의 추천도서	24	文學書 추천의 객관성과 주관성 / 李重漢
교양논단	26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이영호
세계의 출판	28	'제 4 차 文庫畵' 맞은 일본출판계·外
독자서평	23	「대통령아저씨 그제 아니어요」— 張世珍 「삼천리호 자전거」— 朴惠暻 「세 자매 이야기」— 이혜수
	30	신간안내
	38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200자 안내 / 계간지 / 영인본
	42	새로 나온 詩集
	43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48	독서퍼즐 / 정기구독 안내